FX Market Daily

2026-10-02

전일동향

유럽 재정우려에...1,356.70원에 마감

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52.80(15:30 기준)에서 5.70원 상승한 1,358.5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서울장에서 1,360원 안팎을 등락하다, 오후 7시경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해 1,366.70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유럽발 재정 우려에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며 1,358.4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2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59.05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58.50	1366.70	1356.50	1358.40	1359.60
엔화	862.26	866.94	857.30	859.05	-
유로화	1536.21	1544.73	1525.07	1526.82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89	-3.03	-6.76	-15.23
결제환율(수입)	-0.38	-1.74	-4.63	-11.59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안전자산 선호 심리에...1,35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8.40, 15:30 기준) 대비 0.15원 하락한 1,357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유럽발 재정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강달러에 상승 전망한다. 간밤 프랑스 정부는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프랑스발 재정 위기가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었다.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과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 에너지 공급 우려에 WTI 국제유가가 2.75% 상승한 점과,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.34%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가 글로벌 달러 강세 뒷받침하고 있어, 이에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으며 금일 환율 상승 전망한다. 한편, 금일 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변동성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연준 제퍼슨 부의장이 추가 인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반락한 점은 원화 지지요인이 될 수 있고, 수출업체 네고 물량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 1352.33 ~ 1365.33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1194.46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15원↓
- ■ 美 다우지수 : 50926.56, +20.51p(+0.04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89.71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50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